

## 수선사(修禪社)의 『선문영송집(禪門拈頌集)』 편찬과 임제종(臨濟宗) 황룡파(黃龍派)의 어록

Compilation of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by Suseonsa(修禪社) and Zen analects of Imje Hwang-ryong-pa Sect(臨濟宗 黃龍派)

---

저자 (Authors)	조명제 Myung Je Cho
출처 (Source)	<a href="#">불교학보 68</a> , 2014.7, 225-265 (41 pages) <a href="#">BUL GYO HAK BO 68</a> , 2014.7, 225-265 (4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a>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69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698</a>
APA Style	조명제 (2014). 수선사(修禪社)의 『선문영송집(禪門拈頌集)』 편찬과 임제종(臨濟宗) 황룡파(黃龍派)의 어록. 불교학보, 68, 225-26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8 10:5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臨濟宗 黃龍派의 어록

조명제\*

---

## 〈 목 차 〉

---

- |                   |                                 |
|-------------------|---------------------------------|
| I. 머리말            | III. 황룡파의 선적이 『선문염송집』 편찬에 미친 영향 |
| II. 황룡파 선적의 수용 양상 | IV. 맺음말                         |
- 

## 〈한글요약〉

임제종 황룡파는 북송말 선종을 주도한 종파이지만, 남송 이후에 양기파로 대체되면서 선종계에서 사라졌다. 현재 황룡파에 대한 선적 자료가 많지 않고, 그에 대한 연구 성과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고려 선종계에서 황룡파의 어록은 12세기에 學一, 坦然 등이 활약하던 단계에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들은 선종을 부흥시키면서 송대 선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황룡파의 선적을 입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황룡파의 선적에 대한 관심은 문인들에게도 확산되었는데, 이인로가 각법의 『냉재야화』, 『균계집』 등에 대해 주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각법의 시화집이 주목된 이유는 당시 고려의 문인들에게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친 송의 江西詩派의 시문학과 관련된다. 강서시파의 황정건, 소동파 등이 고려 문학계에 미친 영향은 송대에 선문학이 확산된 양상과 마찬가지로 선의 사회적, 문화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가 단편적인 사실 확인에 그친다면, 고려 선종계에서 황룡파의

---

\* 신라대학교 사학과 교수

어록이 수용된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선문염송집』(이하 『염송집』)이다. 『염송집』에 수록된 황룡과의 착어를 분석,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착어의 인용 횟수가 많은 선승은 心聞曇贲(148), 無示介諶(85), 眞淨克文(62), 晦堂祖心(49), 東林常總(49), 長靈守卓(44), 智海智淸(43), 黃龍慧南(40), 佛陀德遜(28), 崑山慧元(27), 死心悟新(25), 慈航了朴(21), 仰山行偉(18), 覺範惠洪(12), 開元子琦(7) 등의 순이다. 따라서 황룡혜남의 문하에서 회당조심 - 영원유청 - 장령수탁 - 무시개심 - 심문담분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중시되었다. 이들이 중시된 것은 황룡과의 주류라는 것과 함께 탄연이 무시개심의 범맥을 이었기 때문에 고려 선종계와의 관계가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황룡과 초기의 선승들의 착어는 염고, 송고 등이 다양하게 인용되었지만, 장령수탁 이후 황룡과 후기의 선승들의 경우에는 송고의 비중이 대체로 큰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북송기 선종계에서 착어가 대개 염고 중심에서 송고 위주로 변화하였던 경향과 일치한다.

셋째, 각범혜흥의 선적은 선종계만이 아니라 강서시파의 시문학과 관련하여 고려 사상계에서 다양하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각범의 착어는 『염송집』에서 별로 인용되지 않았는데, 그의 착어가 대부분 특정 공안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염송집』의 구성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황룡과의 어록에서 인용된 착어의 내용과 성격을 통해 『염송집』이 문자선의 집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문헌이라는 성격이 잘 드러난다. 그것은 『진정어록』에서 상당히 많은 착어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염송집』에는 무사선에 대한 비판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 • 주제어

『선문염송집』, 수선사, 임제종 황룡파, 문자선, 공안선, 각범혜흥, 진정극문

## 1. 머리말

송대의 선은 수행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公案禪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선문에 공유되는 고전으로서 수집, 선택된 선인의 문답 기록인 공안을 과제로서 참구하는 것이 수행의 중심이 되었다. 그 방법은 크게 文字禪과 看話禪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선은 공안의 비평과 재해석을 통해 禪理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代語, 別語, 頌古, 拈古, 評唱 등이 그 주된 수단이다. 문자선은 북송초의 汾陽善昭(947~1024)의 『汾陽頌古』에서 비롯되며, 그 정점에 이른 것이 雪竇重顯(980~1052)의 『雪竇頌古』와 그것에 대한 圓悟克勤(1063~1135)의 강의록인 『碧巖錄』이었다.

한편, 간화선은 특정한 공안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 그 한계점에서 마음의 激發, 大破를 통해 극적인 깨달음의 체험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모든 구도자가 실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開悟의 방법화는 원오의 제자인 大慧宗杲(1089~1163)에 의해 완성되었다. 아울러 간화선의 완성은 여러 가지 배경과 경위가 있지만, 『벽암록』의 평창 가운데 간화선으로 결실되는 싹이 드러났다.<sup>1)</sup>

이러한 송대 선의 흐름은 12세기에 이르러 고려 불교계에 점차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3세기에 수선사가 등장하면서 송대 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양상은 13세기에 간행되었던 송대 禪籍이나 고려 선종계에서 저술되거나 편찬된 선적을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선적 중에 『선문염송집』(이하 『염송집』)은 수선사가 독자적으로 편찬한 공안집이며, 고려 선적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문헌이다. 왜냐하면 『염송집』은 송대 선적을 토대로 한 자료이므로 고려 선종계에서 송대 선적과 공안선이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래 『염송집』에 대한 연구는 전체의 체재나 구성 문제에 그친 수준이거나, 편찬자 핵심과 관련된 문제에 그쳤다. 나아가 저본 분석이나 사상사적 성격에 대한 접근도 거의 없었다.<sup>2)</sup> 이러한 한계는 『염송집』이 기본적으로 송대 선적의 공안과

1) 이에 대해서는 小川隆, 『續・語錄のことは『碧巖錄』と宋代の禪』(교토 : (財)禪文化研究所, 2010); 『語錄の思想史』(도쿄 : 岩波書店, 2011) 참조. 문자선이라는 용어는 覺範惠洪의 『石門文字禪』에서 연유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周裕鍇, 『禪宗語言』(항주 : 浙江人民出版社, 1999); 『文字禪與宋代詩學』(高等教育出版社, 1998).

2)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宗門統要集』, 『보조사상』 34(서울 : 보조사상연구원, 2010), p.48.

착어를 집대성한 것이므로 저본에 대한 문헌학적 기초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sup>3)</sup>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송대의 대표적인 선승들이 남긴 착어가 『염송집』에 어떻게 인용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그 성과를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sup>4)</sup> 이 글에서는 임제종 황룡파 선승들의 어록이 고려 선종계에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그것이 『염송집』의 편찬에 어떻게 활용되며, 그 사상사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II. 황룡파 선적의 수용 양상

송대의 선은 처음 운문종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북송 말에 이르러 운문종이 쇠퇴하면서 임제종이 서서히 부각되었다. 眞宗(998~1022), 仁宗(1023~1063) 무렵에 임제종에서 石霜楚圓(980~1040)의 제자 중에 黃龍慧南(1002~1069)과 楊岐方會(992~1049)가 등장하여, 각각 그 문하에 많은 선승을 배출하여 황룡파와 양기파라는 양대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 가운데 먼저 황룡파가 선종계를 주도하였고, 이어 남송 대에 이르러 양기파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황룡혜남은 首山省念 - 汾陽善昭 - 石霜楚圓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계승하였으며, 臨濟下 8세에 해당한다. 그는 隆興府의 黃龍山에 머물며 종풍을 드날렸으며, 그의 선풍은 호남, 호북, 강서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sup>5)</sup> 그는 본래 운문종 泐潭懷澄의 법을 이었지만, 회징의 선을 비판하였던 雲峯文悅의 권유로 석상초원의 문하에 나아가면서 임제종으로 전향하였다.<sup>6)</sup> 혜남의 전향은 본래 운문문언의 선의 본질이었던 법

3) 기존 연구 가운데 椎名宏雄, 『『禪門拈頌集』の資料價值』, 『印度學佛教學研究』 第51卷 第1號(도쿄: 印度學佛教學會, 2002)은 송원판 선적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염송집』의 자료 가치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된다. 다만, 이 글은 『염송집』에 대한 저본 분석을 하지 않았고, 고려 불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4) 조명제, 앞의 글;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禪宗頌古聯珠集』』, 『불교학보』 62(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2);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한국사상사학』 42(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12);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宏智錄』』, 『불교학보』 63(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2);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운문종의 어록』, 『역사와 경계』 90(부산: 부산경남사학회, 2014).

5) 阿部肇一, 『增訂中國禪宗史の研究』(도쿄: 研文出版, 1986), pp.307-314.

6) 西口芳男, 『黃龍慧南の臨濟宗轉向と泐潭懷澄 - 附録『宗門拈頌集』の位置とその資料的價值』, 『禪

신 향상, 자기 향상이 사라져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sup>7)</sup> 또한 혜남이 운문종에서 임제종으로 전향한 동기는 운문종이 쇠퇴하고 임제종으로 수렴되어 가는 이유의 하나를 엿볼 수 있다.<sup>8)</sup>

혜남의 문하에는 東林常總(1025~1091), 眞淨克文(1025~1102), 崑山慧元(1037~1091), 慧林德遜, 仰山行偉, 隆慶景閑, 開元子琦, 雲居元祐(1030~1095), 保寧圓機, 泐潭洪英, 雲蓋守智, 大滄懷秀 등이 배출되었다. 이들 가운데 동림상총과 회당조심의 문하에서 가장 많은 선승들이 배출되었다. 또한 진정극문의 문하에서 覺範惠洪(1071~1128), 湛堂文準, 兜率從悅 등이 배출되었고, 王安石, 張商英 등 거사들도 법맥을 이었다.

이 가운데 황룡파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회당조심의 문하에서 靈源惟清(?~1117), 死心悟新(1043~1114), 草堂善清(1057~1142) 등이 배출되어 활약하였다. 아울러 영원유청의 법맥은 長靈守卓(1065~1123) - 無示介諶 - 心聞曇賁으로 이어졌다.<sup>9)</sup> 그러나 선종의 흐름이 황룡파에서 양기파로 전환되고, 대혜종고 이래 간화선이 성행되면서 황룡파는 선종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황룡파는 자파의 전등사서가 없지만<sup>10)</sup>, 북송 대에 활약하였던 선승들의 어록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황룡파가 남송 이후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어록도 현전하는 것이 많지 않다. 황룡파의 어록은 현재 四家錄<sup>11)</sup>, 『古尊宿語錄』에 수록된 것과 각범의 저작 등을 통해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文化研究所紀要』 16(교토 : 花園大學 禪文化研究所, 1990).

7) 이리야 요시타카는 운문선의 본질을 끊임없이 자기를 변혁하면서 향상에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였다.(入矢義高, 『雲門の禪』, 『増補自己と超越』(도쿄 : 岩波書店, 2012) 참조).

8) 西口芳男, 앞의 논문, pp.240-243.

9) 『建中靖國續燈錄』 등 전등사서를 참고하면 황룡파는 2세가 85인, 3세가 114인, 4세가 176인, 5세가 56인, 6세가 19인, 7세가 6인 등 합계 656인의 인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동림상총 문하가 154인, 황룡혜남의 문하가 150인, 진정극문 문하의 64인, 운거원우 문하 36인 등의 순으로 문하 제자가 배출되었다.(石井修道, 『黃龍派の盛衰』, 『宗教研究』 49-3(도쿄 : 日本宗教學會, 1976).

10) 다만, 황룡파 古月道融이 慶元 3년(1197)에 저술한 『叢林盛事』가 황룡파 선승들의 활동을 주로 소개한 문헌으로 남아 있다.

11) 五代에서 송대에 걸쳐 5가 7종이라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파를 형성하는 4대 조사의 어록을 모은 사가록이 계속해서 출현하였다. 德山, 馬祖, 黃龍, 慈明 등의 이름을 붙인 사가록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가운데 『馬祖四家錄』은 황룡혜남이 元豐 8년(1085) 무렵에 상하 2권으로 편집해서 간행하였다.

『黃龍四家錄』(4권)은 황룡혜남 - 회당조심 - 사심오신 - 超宗慧方(1073~1129)으로 이어지는 4가의 어를 집성한 것이다. 이 사가록은 紹興 11년(1141)에 초종과 범형제에 해당하는 寂星慧泉에 의해 편집되었다. 이 가운데 혜남, 조심, 오신의 어록이 『염송집』에 적지 않게 인용되었다.

『고존숙어록』은 명의 南藏에 수록된 48권본을 가리키는데, 송대 이래 몇 차례에 걸쳐 증보, 간행되었던 것이다. 먼저 紹興 8년~14년(1138~44) 무렵 鼓山の 僧挺守 曠이 당말에서 북송에 이르는 선승의 어록, 20家 22권의 『古尊宿語要』를 편집하여 간행하였다.<sup>12)</sup> 이후 淳熙 5년(1178)에 鼓山の 小菴德最가 瑯琊慧覺, 五祖法演 2家の 어록을 더해 22가로 하고, 각 선승의 小傳을 각 권의 첫머리에 더해 간행하였다. 또 嘉熙 2년(1238)에 鼓山の 晦室師明이 20家 4策에 새롭게 편집한 80家の 『續刊古尊宿語要』 6策을 합쳐 100가 10책으로 간행하였다. 正集 20家が 전집인 것에 비해 續集 80가는 초록이다.

이어 咸淳 3년(1267)에 항주의 覺心居士가 22가에 佛眼, 眞淨, 雲門 등 3가를 더해 重刊하였다. 이후 『黃梅東山錄』, 『臨濟錄』, 『東林和尚雲門庵主頌』 등이 더해져 간행되었고, 더욱이 9가의 어록이 더해져 증보, 개편된 36가 48권의 『古尊宿語錄』이 永樂 2년(1404)에 淨戒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이 大明南藏에 입장되었고, 영락 11년(1413)에 대장경의 일부로서 간행되었다.

그런데 황룡과의 어록 가운데 『고존숙어록』에 전집으로 어록이 완전하게 남은 것은 진정극문의 어록뿐이다.<sup>13)</sup> 진정극문은 寶峯克文, 雲庵克文이라고도 불리며, 진정은 생전에 神宗에게 받은 大師號이다. 그는 대혜종고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대혜과에서는 진정만을 중시하였다.<sup>14)</sup>

覺範慧洪은 진정극문의 제자이며, 대혜의 스승이었던 湛堂文準이 각범의 사형이었다. 문준이 입적한 후에 대혜가 그의 범어집을 간행할 때에 각범을 찾아가 편찬을 상

12) 宇井伯壽, 『古尊宿語錄について』, 『第二禪宗史研究』(도쿄: 岩波書店, 1939), pp.473-509.

柳田聖山, 『古尊宿語錄考』, 『花園大學研究紀要』 2(교토: 花園大學, 1971).

柳田聖山, 『宋版古尊宿語錄調査報告』, 『禪文化研究所研究紀要』 4(교토: 花園大學 禪文化研究所, 1972).

椎名宏雄, 『古尊宿語錄』 正續諸本の系統』, 『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13(도쿄: 駒澤大學, 1981).

13) 『續刊古尊宿語要』에 桴堂洪英, 도솔종열, 초당선청, 담당문준, 영원유청, 무시개심, 심문담분, 자향요박 등의 어록이 있으나 모두 초록이므로 내용이 소략하다.

14) 石井修道, 『眞淨克文の人と思想』,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4(도쿄: 駒澤大學佛教學部, 1976).

의하였고, 발문까지 부탁하기도 하였다. 각범의 저작은 『林間錄』(2권), 『禪林僧寶傳』(30권), 『臨濟宗旨』(1권), 『智證傳』(1권) 등과 함께 시문 관계 저술인 『石門文字禪』(30권), 『冷齋夜話』(10권), 『天廚禁臠』(3권) 등이 현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의 저술로는 『僧史』 12권, 『志林』 10권, 『易注』 3권, 『甘露集』 30권, 『楞嚴尊頂義』, 『圓覺皆證義』, 『筠溪集』(10권) 등이 있었다.<sup>15)</sup>

한편, 이러한 어록 이외에 회당조심과 영원유청에 의해 편집된 『冥樞會要』가 있다. 이 책은 회당이 永明延壽의 『宗鏡錄』을 발취한 것이며, 제자인 영원유청과 시자인 普燈의 협력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 책은 紹聖 3년(1096)에 3卷 3冊本으로 간행되었고, 『종경록』 100권의 요약본으로서 선종계에 널리 애독되었다.<sup>16)</sup>

이상에서 북송 시기 황룡파의 흐름과 현전하는 어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황룡파의 어록이 고려 선종계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자료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황룡파의 선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해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단편적인 자료와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송과 거란의 대립 구도가 지속되면서 고려 불교계는 북송 불교계의 동향을 직접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려와 송의 국교가 재개되면서 慧照國師 曇眞이 文宗 9년(1076)에 송에 들어가 3년 정도 머물면서 북송대 선종의 새로운 동향을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17)</sup> 그는 임제종의 淨因道臻(1014~1093)을 비롯한 송의 선승들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다.<sup>18)</sup> 담진은 유학을 마친 후에 遼山大藏經과 좌선의 수행규칙을 도입하였다.<sup>19)</sup> 따라서 담진은 북송 선종의 동향을 이해하고, 임

15) 그는 회종에게 ‘寶覺圓明’이라는 법호를 받았고, 흥종에게도 중용되었지만, 무고로 인해 수차례 투옥되고 환속을 당하기도 하였다. (阿部肇一, 앞의 책, pp.449-466 및 柳田聖山, 『禪の文化 資料篇』(교토: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8), pp.3-111 참조.)

16) 椎名宏雄, 『解題』 『禪學典籍叢刊』 第3卷(교토: 臨川書店, 2000), pp.423-427.

17) 鄭修芽, 『慧照國師 曇眞과 ‘淨因髓’-北宋禪風の 수용과 高麗中期 禪宗의 부흥을 중심으로-,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1994, pp.618-622.

18) 도진은 본래 임제종 淨山法遠(991~1067)의 법맥을 계승하였지만, 東京 淨因禪院에서 머물면서 大覺懷璉(1009~1090)에게 나아가 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정인선원의 후임 주지로 추석하였다. 대각회련은 『宗門遮英集』을 편찬한 承天惟簡과 함께 泐潭懷澄의 법을 이었던 운문종의 선승이다. 따라서 담진이 운문종의 선승들과 교유하면서 운문종의 선적이나 문자선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조명제, 앞의 논문(2014), pp.122-123 참조.)

19) 허홍식, 『고려중기 선종의 부흥과 간화선의 전개』, 『규장각』 6(서울, 서울대 규장각, 1982). 조명제, 『고려후기 계환해 능엄경의 성행과 사상사적 의의』, 『부대사학』 12(부산: 부산대 사학회, 1988).

제종의 선적을 도입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북송대 선종의 동향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임제종 황룡과의 선적이 수용되는 양상이 다양하게 드러난다.<sup>20)</sup> 이러한 양상은 圓應國師 學一(1052~1144), 大鑑國師 坦然(1070~1159)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학일의 비문에 의하면, 선승들이 2종의 자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학일이 자기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후에 각 범의 『禪林僧寶傳』<sup>21)</sup>이 입수되면서 증명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sup>22)</sup> 『선림승보전』은 이후 고려 선종계에서 계속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sup>23)</sup> 그 외에 후대의 자료이지만 『禪門寶藏錄』에 『寂音尊者錄』이 인용되어 있으므로 각범의 어록도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한편, 坦然은 황룡과의 無示介諶(1080~1148)에게 송의 상인을 통해 四威儀頌과

김상영, 『고려 예종대 선종의 부흥과 불교계의 변화』, 『청계사학』 5(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88).

조명제, 『고려중기 거사선의 사상적 경향과 간화선 수용의 기반』, 『역사와 경계』 44(부산: 부산경남사학회, 2002).

20) 李資玄(1061~1125)이 운문문언과 설두중현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자현을 비롯한 거사들을 통해서도 운문종을 비롯한 송대 선에 대한 관심과 영향이 드러난다.(조명제, 위의 글(2002), p.110. 및 조명제, 앞의 논문(2014), pp.121-122 참조). 이러한 양상은 황룡과의 선에 대한 관심이나 선적이 수용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1) 『선림승보전』 30권은 宣和 4년(1122)에 찬술된 것으로 唐末에서 北宋까지 江西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던 선승 81명의 전기이며, 법계순이 아니라 列傳體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각범 자신의 법계인 황룡과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며, 그가 외경한 황룡과 3세인 靈源惟清을 마지막에 서술하였다.(陳垣, 『中國佛教史籍概論』(베이징: 中華書局, 1962), 柳田聖山, 앞의 책.)

22) 尹彦頤 撰, 『圓應國師碑銘』, 『조선금석총람』(이하 『금석』) 上, 350쪽, “是年主盟選席, 時學者盛談二種自己. 師曰, 自己一而已, 安有二哉, 從今已往, 宜禁止之. (결탁)久 致疑於其間者衆, 及 惠洪僧寶傳至, 判古師三失, 以分自己爲一失, 學者見此然後斷惑.” 이 비문에서 古師의 三失이란 각범이 薦福承古의 잘못을 세 가지로 비판한 것이다. 첫째 삼현삼요를 현사사비가 세운 三句로 간주한 것이고, 둘째, 巴陵顛鑑의 三轉語를 비판한 것이며, 셋째 자기를 양종으로 나눈 것이다. 원문은 『禪林僧寶傳』 권12 『薦福古禪師』이며,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고려편 3-』(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p.281, 주 90), 91)에도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 정영식, 『三玄三要의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선학』 25(서울: 한국선학회, 2010) 참조.

23) 『禪林僧寶傳』의 『仰山行偉禪師』, 『法雲圓通法秀禪師』 등이 『禪門寶藏錄』 卷中(『한불전』 6, pp.477b-478a)에 인용되어 있다. 한편, 『禪門寶藏錄』에는 『眞淨文和尚頌』(『한불전』 6, 471b)이 인용되어 있으므로 진정의 어록이 수용되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24) 『禪門寶藏錄』 卷上(『한불전』 6, 471b). 한편, 지눌의 『勸修定慧結社文』에 雲蓋守智의 어구를 인용하고 있는데(『한불전』 6, 471b), 이 구절은 『林間錄』 卷上(X87-258a)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上堂語句를 보내 인가를 받았고, 戒環 등 개심의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류를 지속하였다.<sup>25)</sup> 이와 같이 탄연이 개심의 문하 선승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황룡과의 선적이 다양하게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계환의 『법화경』, 『능엄경』에 대한 주석서가 고려 불교계에 수용되어 조선후기까지 줄곧 영향을 미쳤던 것에서 잘 드러난다.<sup>26)</sup> 또한 심문이 紹興 2년(1132)에 스승 개심의 발문을 받아 간행한 『宗鏡錄撮要』가 1213년에 수선사에서 중간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룡과의 선적은 학일, 탄연 등이 활동하는 12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주지하듯이 의천의 천태종 개창으로 타격을 받은 선종은 학일을 중심으로 한 가지산문과 탄연을 중심으로 한 사굴산문이 부각되면서 종세를 회복하였다. 따라서 학일과 탄연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황룡과의 선적이 이들 산문에 널리 확산되었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양상은 선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明宗 9년(1179)에 구산문도 500인을 대상으로 한 龍門寺 談禪法會에서 강의된 문헌으로 『雪竇拈頌』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전국의 선승을 초청한 담선회에서 『설두송고』와 『설두염고』가 대표적인 선적으로 강의된 것은 그 만큼 공안 비평에 밝은 선승들이 존재하였고, 나아가 선문 일반에서 문자선에 대한 폭넓은 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sup>28)</sup>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선승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인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다음의 자료는 그러한 면을 잘 보여준다.

혜홍의 『冷齋夜話』를 보니, 10의 7, 8은 그가 지은 것으로 淸婉하여 세속을 벗어난 느낌이 있으나, 그 본집을 보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근래 『筠溪集』을 얻어 보니 대

25) 李之茂 撰, 『高麗國曹溪宗岷山下斷俗寺大鑑國師之碑銘并序』, 『금석』 상, p.564, “嘗寫所作四威儀頌 併上堂語句 附商船 寄大宋四明阿育王山廣利寺禪師介諶印可 諶乃復書 極加歎美 僅四百餘言 文繁不載 又有道膺·膺壽·行密·戒環·慈仰 時大禪伯也 乃致書通好 約爲道友 自非有德者 豈能使人 鄉慕如此哉.” 아울러 『五燈會元』 18, 『育王諶禪師法嗣』에도 탄연이 인가를 받은 사실이 서술되어 있다.

26) 고익진, 『法華經 戒環解 盛行來歷考』, 『불교학보』 12(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75), 조명제, 앞의 논문(1988) 참조.

27) 李知命, 『龍門寺重修碑』, 『금석』 상, p.409, “己亥年創寺工畢, 會九山門學徒五百人, 設五十日談禪會, 請斷俗寺禪師孝惇, 教習傳燈錄·楞嚴經·仁岳集·雪竇拈頌.”

28) 조명제, 앞의 논문(2014), p.125 참조. 운문종의 선적은 설두의 어록 외에 『宗門統要集』, 『宗門遮英集』, 『祖庭事苑』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이 고려에 수용되었다.

부분이 贈答篇이었다. 이를 玩味해보니 모두 전에 보던 시에 미치지 못했다. 혜홍은 비록 奇才이지만 역시 외부적인 기교를 면하지 못하였다.<sup>29)</sup>

위의 글에서 李仁老(1152~1220)가 『冷齋夜話』, 『筠溪集』 등 각범의 시화집을 주목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인로가 각범의 시화집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각범의 시화집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며, 그것이 이인로의 시문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冷齋夜話』(10권)는 각범이 제방의 시문에 관한 견문 기사, 시인들의 逸話 및 그들의 평론 등 총 161 항목의 小品을 집성한 것이다. 이 책은 북송기 선승의 작품으로서 특이하며, 각범이 시문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소동파의 시에 대한 기사가 대단히 많으므로 그에 대한 관심이 깊었음이 잘 드러난다.<sup>30)</sup> 이러한 특징은 각범이 찬술한 詩話集인 『天廚禁臠』(3권)에도 잘 드러난다. 그는 이 책에서 당, 송의 名句를 範例範式으로 그들 詩格을 38항목으로 세분하여 논평하였다. 전체 예구 가운데 소동파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며, 불교적인 예구도 많다.<sup>31)</sup>

『筠溪集』은 『石門文字禪』 30권의 전반부 16권을 뽑아 재편집한 것이다. 『석문문자선』은 권1~16에 수록된 고시, 율시 등이 1000수를 넘으며, 권17에 偈, 권18~19에 贊 128수, 권20 이하에 銘, 詞, 賦, 記, 序, 題, 跋, 疏, 書, 塔銘, 行狀, 傳, 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시문은 송대 지식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sup>32)</sup>

그런데 고려의 문인들에게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친 시문학은 송의 黃庭堅(1045~1105), 蘇東坡(1036~1101)로 대표되는 江西詩派였다.<sup>33)</sup> 이러한 경향은 이인로도 예

29) 李仁老, 『破閑集』 卷上(高麗名賢集 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6, 이하 고려 문집은 모두 이 책에서 인용하였으며, 페이지만을 표시함.), p.83a, “讀惠弘冷齋夜話, 十七八皆其作也, 清婉有出塵之想, 恨不得見本集. 近有以筠溪集示之者, 大率多贈答篇, 玩味之, 皆不及前詩遠甚. 惠弘雖奇才 亦未免瓦注也.”

30) 椎名宏雄, 『解題』『禪學典籍叢刊』 第5卷(교토: 臨川書店, 2000), p.854.

31) 陳垣, 『中國佛教史籍概論』(베이징: 中華書局, 1962), 柳田聖山, 앞의 책, 椎名宏雄, 위의 글, pp.858-859.

32) 椎名宏雄, 앞의 글(2000), p.851.

33) 李仁老, 『破閑集』 卷上, p.87a, “及至蘇黃 則使事益精 逸氣橫出 琢句之妙 可以與少陵并駕.”, 『破閑集』 卷下, p.97b, “近者蘇黃崛起 雖追尙其法 而造語益工 了無斧鑿之痕 可謂青於藍矣.” 한편, 고려시기에 소동파의 시문을 배우는 경향이 대단히 성행하였던 사실은 李奎報, 『答全履之論文書』, 『東國李相國集』 권26 및 『東人詩話』 上 등에서 확인된다. 황정건과 소동파에 대한

외가 아니므로 그 역시 황정건, 소동파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sup>34)</sup> 그는 황정건과 소동파의 시집을 읽고 난 후에야 말이 힘차고 운이 찌렁찌렁 울려 시를 짓는 데에 삼매정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할 정도였다.<sup>35)</sup> 특히, 『破閑集』에 이인로가 황정건의 換骨奪胎論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sup>36)</sup>

고인의 시에 근본을 두고 짓는 것을 환골이라 하고, 고시의 뜻에 근본을 두되 조금 그 뜻을 바꾸는 것을 탈태라고 한다. 곧 옛 사람의 시문을 본떠 거기에 새로운 생각을 넣어 자기의 시문을 만드는 것이다. 作詩法에서 환골탈태론은 강서시파의 기본 테제였다. 나아가 이 설을 해설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이 바로 『냉재야화』 권1에 수록된 각범의 말이다.<sup>37)</sup>

각범은 강서시파의 종조에 해당하는 황정건의 작시법에 대한 중요 개념을 가장 탁월하게 해설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각범은 강서시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의 시문집은 북송의 문인들에게도 널리 수용되었다. 실제 각범의 시화집에는 소동파, 황정건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다.<sup>38)</sup> 각범은 詩禪一味論에 입각하여 낙천적으로 문자선의

국내의 연구 성과로는 다음의 글을 참조.

정상홍, 『江西詩派 詩論 形成背景 1』, 『중국문학연구』 11(서울 : 한국중문학회, 1993).

변중현, 『高麗朝漢詩研究-唐宋詩 受容樣相과 韓國的 變容-』(서울 : 대학사, 1994), pp.27-64.

박영환, 『황정건 선시의 내면적 고찰』, 『중국어문학』 36(대구 : 영남중국어문학회, 2000).

조규백, 『고려시대 문인의 소동파 시문 수용 및 그 의의(1, 2)』, 『퇴계학과 한국문화』 39, 40(대구,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6, 2007).

정선모, 『고려시대 소동파 시문집의 수용과정에 대하여』, 『한문학보』 15(서울 : 우리한문학회, 2006).

34) 林椿, 『與眉叟論東坡文書』, 『西河集』 卷4, p.43, “僕觀 近世東坡之文大行於時, 學者誰不伏膺 呻吟. 然徒翫其文而已, 就令有擲竄竊, 自得其風骨者, 不亦遠乎.”

35) 崔滋, 『補閑集』 卷中, p.132, “李學士眉叟曰, 吾杜門讀黃蘇兩集, 然後語遵然韻鏘然, 得作詩三昧.”

36) 『破閑集』 卷下, p.100b, “昔山谷論詩 以爲不易古人之意, 而造其語 謂之換骨, 規模古人之意 而形容之 謂之奪胎. 此雖與夫活剝生吞者, 相去如天淵. 然未免剽掠潛竊以爲之工, 豈所謂出新意於古人所不到者之爲妙哉.”

37) 『換骨奪胎法』 『冷齋夜話』 권1(椎名宏雄, 『禪學典籍叢刊』 第5卷(교토 : 臨川書店, 2000), p.769a, “山谷云 詩意無窮, 以人之才有限, 以有限之才, 追無窮之意, 雖淵明少陵, 不得工也. 然不易其意, 以造其語 謂之, 換骨法, 規模其意形容之 謂之奪胎法.” 다만, 환골탈태론은 황정건의 시문집에서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으므로 위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오태석, 『江西詩派에서의 點鐵成金·換骨奪胎論의 생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중국어문학』 19(대구 : 영남중국어문학회, 1991) 참조.) 그러나 이론 자체의 신빙성 문제와 관계없이 고려중기에 황정건의 시문에 대한 논의가 각범의 『냉재야화』를 비롯한 시화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38) 龔鵬程, 『江西詩社宗派研究』(타이페이 : 文史哲出版社, 1983).

세계에 빠져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의 글에서 이인로가 각범에 대해 비평한 내용은 송의 晁公武가 각범을 비판한 것과 비슷하다.<sup>39)</sup> 또한 이인로가 환골탈태를 논한 글에서 자칫 잘못하면 표절에 그칠 위험성을 지적하지만, 그러한 논의도 송대에 이미 제기되었던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인로가 각범의 시화집을 중시하였던 것은 송과 고려에서 성행된 강서시파의 시문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문헌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황정건, 소동파는 張商英(1043~1121)과 함께 모두 임제종 황룡파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뒤의 <황룡파 법계도>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은 모두 황룡파의 법맥을 계승하였으며, 모두 선에 깊은 이해를 지닌 인물이다.<sup>40)</sup> 그러므로 이인로를 비롯한 고려 문인들이 강서시파의 시에 폭넓은 영향을 받는다든지 각범의 시화집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황룡파의 선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 Ⅲ. 황룡파의 선적이 『선문염송집』 편찬에 미친 영향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선종계에 황룡파의 선적이 수용되었던 양상은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역사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염송집』은 황룡파의 어록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어 황룡파의 선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황룡파의 어록이 『염송집』에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뒤의 <표>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전체 <표>를 통해 착어의 인용 횟수가 많은 순서는 心聞曇賁(148), 無示介諶(85), 眞淨克文(62), 晦堂祖心(49), 東林常總(49), 長靈守卓(44), 智海智淸(43), 黃龍慧南(40),

大野修作, 「惠洪『石門文字禪』文學世界」, 『禪學研究』 67(교토:花園大學, 1989).

한편, 『석문문자선』이 송대 지식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사실은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許顥, 『彥周詩話』 등에서 각범의 시를 절찬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椎名宏雄, 앞의 글(2000), p.8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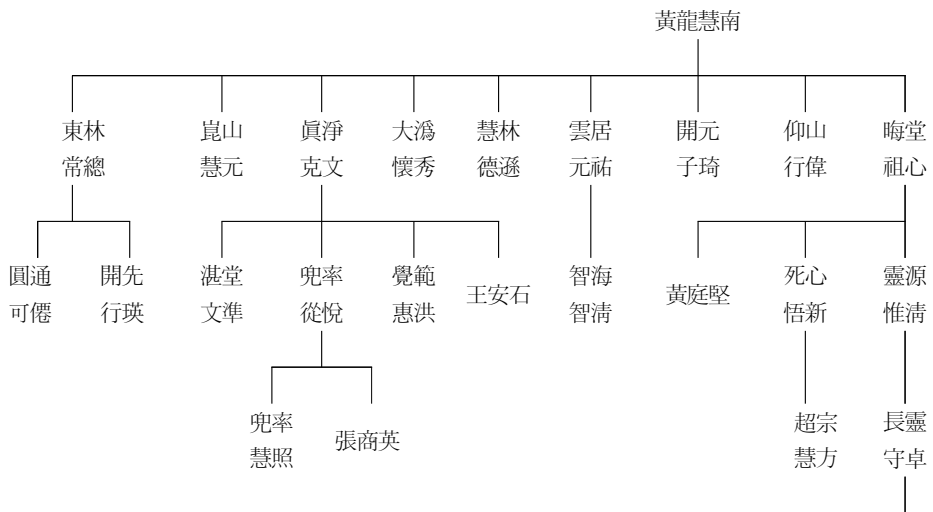
39) 南宋 初에 晁公武는 『郡齋讀書志』(1151)에 ‘각범의 『임간록』, 『선림승보전』, 『냉재야화』 등이 널리 읽히지만, 과장이 많으므로 믿는 사람이 적다.’는 비판을 남기고 있다.(椎名宏雄, 『宋元版禪籍の研究』(도쿄:大東出版社, 1993), p.425 참조.)

40) 阿部肇一, 앞의 책, pp.307-462 참조.

佛陀德遜(28), 崑山慧元(27), 死心悟新(25), 慈航了朴(21), 仰山行偉(18), 覺範惠洪(12), 開元子琦(7) 등의 순이다.<sup>41)</sup> 그 외에 거사인 張商英(48)도 인용 횟수가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 淸나라의 직계 제자들이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황룡과 가운데 많은 선승을 배출한 동림상종의 제자들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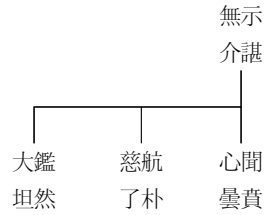
그런데 <황룡과의 법계도>에서 드러나듯이 『염송집』에 수록된 착어가 많은 선승들은 淸나라의 문하에서 회당조심 - 영원유청 - 장령수탁 - 무시개심 - 심문담분으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이들이 중시된 것은 황룡과의 주류라는 사실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선사가 황룡과와 고려 선종계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염송집』에는 송대 선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심문담분과 무시개심의 착어가 황룡과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더욱이 『염송집』 본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장령수탁과 무시개심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탄연이 무시개심의 법맥을 이었으며, 심문담분과 범형제라는 관계가 중시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곧 수선사가 임제종의 정통성을 의식한 결과가 『염송집』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sup>42)</sup>



41) 착어의 인용 횟수가 적은 황룡과 선승은 保寧圓璣 2회(1207, 751칙), 隆慶景閑 2회(1448, 1398칙), 雲居元祐 2회(32, 421칙), 湛堂文準 4회(49, 521, 1014, 1035칙), 大滄懷秀 4회(1138, 1127, 572, 568칙), 泐潭洪英 2회(208, 2칙) 등이다.

4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종경촬요』가 혜심에 의해 수선사에서 간행되며, 『계환해능엄경』이 중시된단지, 탄연의 비문에서 임제종의 법통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무시개심, 심문담분 등이 중시되는 배경과 관련된다.

〈황룡파의 법계도<sup>43)</sup>〉

한편, 전체 <표>에서 드러나듯이 황룡파의 어록은 현전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많다. 그 이유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황룡파가 남송 이후에 양기파로 대체되면서 선종계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혜종고에 의해 간화선이 대성되면서 북송대 선승들의 어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염송집』에 수록된 황룡파의 어록은 북송말 남송초의 선종사를 이해하는 逸書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다음으로 착어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1>을 보면, 황룡해남의 착어는 모두 40칙에 수록되어 있는데, 송고가 13회 인용되었다. 송고는 모두 『계송』에서 인용되었으며, 전체 착어 중에 송고의 비중이 큰 편이 아니다. 오히려 상당 법어를 통해 인용한 염고의 비중이 크다.

<표2>의 양산행위는 전체 18칙에 인용된 착어 중에 송고가 7회 정도에 그치며, 염고의 인용이 많다. <표3>의 개원자기와 <표6>의 회당조심은 아예 송고가 없다. <표7>의 사심오신도 전체 25칙 중에 송고의 인용이 2회에 그치고, 염고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표16>의 자향요박은 전체 42칙 중에 송고가 12칙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송고의 비중이 작고, 염고를 비롯한 다른 착어가 많다. 예를 들어 <표11>의 지해지청은 전체 43칙 중에 송고가 14칙(총 16수) 인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착어가 더 많다. <표14>의 무시개심도 전체 85칙 중에 송고가 33칙(실제 37수)이지만, 염고가 전체 42칙에 인용되어 있다.

이에 비해 <표4>의 해립덕손은 전체 28칙에 수록된 착어 중에 송고가 20회 인용되어 그 비중이 크다. <표5>의 곤산해원도 전체 27칙에 수록된 착어 중에 송고가 모두 19회(총 24수)나 인용되어 그 비중이 크다. <표8>의 동림상총은 전체 49칙 가운데 송고가 28회 인용되었다. <표9>의 장령수탁은 전체 44칙 중에 송고가 30칙(총 31수) 인용되었다. 특히 『계송』에서 인용한 것이 가장 많으며, 『계송』의 전체 송고 가운데 3수를 제외하고 모두 인용되었다.

43) 이 법계도는 주로 『염송집』에서 중시된 황룡파의 선승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표10>의 진정극문은 전체 62칙 중에 송고가 33칙(총 48수)에 인용되었다. 특히 진정의 송고는 그의 어록 가운데 『계송』에서 전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고의 인용이 적지 않지만, 엮고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표15>의 심문담분은 전체 148칙 중에 송고가 92칙(총 97수)에 인용되어 전체 착어 중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표 17>의 장상영은 인용된 착어 48수가 모두 송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룡과 선승들의 착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수록되었다. 대체로 황룡과 초기의 선승들은 엮고, 송고 등이 다양하게 인용되었지만, 장령수탁 이후 황룡과 후기의 선승들의 경우에는 송고의 비중이 대체로 큰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북송기 선종계에서 착어가 대개 엮고 중심에서 송고 위주로 유행하였던 경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대부분의 어록에서 상당, 소참 등에서 인용한 착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착어는 대개 송대 선승들이 『염송집』에 배열한 고칙 공간에 해당하는 본칙을 거론하면서 제시한 착어를 인용한 것이다. 『염송집』에는 이러한 방식의 인용이 다른 종파의 선승들의 착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상당 형식의 착어는 그 내용을 보면 엮고가 많은 편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공간 비평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담담문준과 각범혜홍은 황룡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수선사에서 그렇게 중시되지 않는다. 간화선을 대성한 大慧宗杲는 23세 때에 담담문준의 문하에 들어가 문준이 입적할 때까지 5년간 가르침을 받았다. 이러한 문준의 위상을 고려할 때에 수선사가 왜 그의 착어를 거의 수록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확인할 수 없다.

각범혜홍은 황룡파를 대표하는 선승의 한 사람이며, 고려 선종계에서 그의 선적이 다양하게 수용되었다. 더욱이 각범의 『석문문자선』을 비롯한 저술에 그의 송고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범의 착어는 『염송집』에 12회밖에 인용되지 않을 정도로 인용이 대단히 적다.

<표12>에서 드러나듯이 각범의 착어는 『林間錄』<sup>44)</sup>, 『禪林僧寶傳』, 『臨濟宗旨』<sup>45)</sup>에서 인용되었다. 그런데 각범의 착어는 일반적인 착어 인용과 다르거나 각범과 무관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염송집』 본칙 1398칙에 인용된 각범의 착어는 黃龍三

44) 『임간록』은 각범이 尊宿의 高行, 총림의 遺訓, 제불보살의 微旨, 사대부의 余論 등에 대해 淸談한 것을 기록하여, 大觀 원년(1071)에 간행한 것이다.

45) 『臨濟宗旨』는 각범이 先德이 제창한 어구를 들어 三玄三要, 十智同眞, 四賓主 등의 요지 해명에 주력하여 임제종지의 파악을 쉽게 하도록 저술한 것이다.

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각범이 雲蓋守智(1025~1115)와 행한 대화를 『임간록』에서 모두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더욱이 본칙 98칙에 인용된 내용은 達觀曇穎(989~1060)이 당시 교학승들이 계송의 번역이 없는 것을 비난하면서 선승들과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 선의 참된 도를 잃어버린 것을 비판하면서 달마의 廓然無聖 공안을 거론한 것이다. 본칙 184칙에서는 황룡혜남의 法嗣인 道圓이 百丈野狐 공안을 통해 깨닫게 된 기연과 계송을 인용하였다. 본칙 1233칙은 진정극문이 洞山守初의 깨달은 경지를 칭찬한 글과 계송을 그대로 소개하였다.<sup>46)</sup>

이러한 내용은 모두 각범의 착어가 아니라 『임간록』에 수록된 다른 선승들의 기연과 계송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각범의 저술에서 각범의 착어가 직접 인용된 것도 있지만, 다른 선승들의 기연과 착어의 전거로 활용된 경우가 더 많다.

이와 같이 각범의 착어가 인용된 형식이나 내용도 일반적인 착어와 다르지만, 각범 저술의 내용도 그의 착어가 적게 수록된 이유와 관련된다. 그것은 각범의 대표적인 저작인 『석문문자선』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 책은 각범이 평생에 걸쳐 지은 방대한 시문을 집성한 것이다. 이 가운데 권17의 계와 권18, 19의 찬은 적지 않은 양이지만, 『염송집』에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각범의 송고와 찬은 대부분 특정 공안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송집』의 형식이나 구성과 어울리지 않아 수록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아가 『염송집』에는 대혜종고가 각범의 문자선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하는 시각도 드러나지 않는다. 필자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염송집』의 편찬 방침이 문자선의 집성에 있었고, 그러한 성격이 각범에 대한 착어 인용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sup>47)</sup> 이러한 경향은 진정극문의 착어에서 더욱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송대 선종사에서 공안선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진정극문의 사상사적 위상은 無事禪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진정의 무사선 비판은 주로 그 대상이 동림 상충이었다. 상충의 선사상은 ‘平常無事’와 함께 ‘知見解會’ 곧 이지적 이해에 대한 부정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선의 특징은 황룡혜남의 사상과 통하며, 혜남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실제 상충은 혜남 문하의 필두이며, 황룡과 중의 주류라고 할 수 있

46) 『임간록』에는 진정극문의 기연을 소개하기 전에 각범의 사구와 활구에 대한 견해가 서술되어 있지만, 『염송집』에는 전혀 인용되어 있지 않다. 『염송집』 전체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만, 각범의 문자선 이해를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송대에 적지 않았던 것에 비해 수선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거의 의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47)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pp.166~167.

다.<sup>48)</sup>

진정은 상충이 제시한 ‘照覺平實의 旨’에 대해 平實도 단순히 일종의 지식이 되어 버려, 학승은 그것에 의존하여 주체성을 잃어버린다고 말한다. 진정은 언어에 대한 교조적인 부정이 평실의 폐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진정은 무사선을 비판 하면서 동시에 깨달음을 대단히 중시하였다.<sup>49)</sup> 그는 참된 獅子兒란 언어적 이해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의 도를 배우는 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見性한 이는 한둘도 되지 않는다’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진정이 평상무사선을 비판한 것은 후에 대혜의 『宗門武庫』, 4권본 『普說』 권3 등에 간화선의 골격으로서 계승되었다.<sup>50)</sup>

상충, 진정, 회당조심 등은 모두 황룡혜남의 범맥을 이은 선승들이다. 진정과 회당은 상충에게서 혜남의 도를 알지 못한다고 평가받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상충을 무사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혜남도 실제로는 운문종의 泐潭懷澄이 무사선적 종풍에 빠졌기 때문에 운문종에서 임제종으로 전향하였다.<sup>51)</sup> 혜남도 무사선적 종풍과 무사선 비판의 관점을 모두 갖고 있었다. 결국 혜남의 무사선적 종풍이 동립상충에게, 무사선 비판이 진정에게 계승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염송집』에 수록된 진정의 착어는 이러한 송대 황룡파의 선의 흐름과 대체로 무관하다. 진정의 착어는 거의 대부분 염고와 송고이며, 특히 송고의 비중이 크다. 『진정어록』에서 상당히 많은 착어가 인용,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선에 대한 비판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송말에서 남송초에 걸쳐 임제종의 선이 문자선에서 간화선으로 전환되어 갔지만, 『염송집』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종래의 통념과 달리 『염송집』이 공안집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간화선과 거의 무관하다. 다시 말해 수선사는 문자선의 집성에 초점을 맞추어 『염송집』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48) 土屋太祐, 『眞淨克文の無事禪批判』, 『印度學佛教學研究』 51-1(도쿄 : 印度學佛教學會, 2002).  
 49) 土屋太祐, 『公案禪の成立に關する試論-北宋臨濟宗の思想史』,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 18(도쿄 : 駒澤大學禪研究所, 2007).  
 50) 石井修道, 앞의 논문(1976) 참조.  
 51) 西口芳男, 앞의 논문 참조.

#### IV. 맺음말

송 초기의 선종은 운문종이 주도하였지만, 임제종도 점차 중세를 확대하였다. 임제종은 석상초원의 문하에서 황룡파와 양기파로 분화되면서 발전하였고, 북송말 이후의 선종을 주도하였다. 이 가운데 황룡파는 남송 이후에 양기파로 대체되면서 선종계에서 사라졌고, 더욱이 대혜종고의 간화선이 성행되면서 황룡파의 어록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황룡파에 대한 선적 자료가 많지 않고, 그에 대한 연구 성과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고려 선종계에서 황룡파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원응국사 학일과 대감국사 탄연 단계이다. 이들은 각각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을 대표하는 선승이며, 의천의 천태종 개창 이후 쇠퇴한 선종을 부흥시켰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송대 선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황룡파의 선적을 입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황룡파의 선적에 대한 관심은 당시 문인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인로가 각범의 『냉재야화』, 『균계집』 등에 대해 주목하고 심취한 것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각범의 시화집이 주목된 이유는 당시 고려의 문인들에게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친 송대江西詩派의 시문학과 관련된다.

각범은 강서시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황정견의 작시법에 대한 중요 개념을 가장 탁월하게 해설하였다. 가령 이인로가 강서시파의 기본 테제인 환골탈태론을 직접 거론하고 이해한 것은 『냉재야화』에서 각범이 해설한 것이었다. 더욱이 황정견, 소동파, 장상영 등은 황룡파의 범맥을 이은 거사로서 황룡파 선승들과 교유 관계가 대단히 깊은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인로를 비롯한 고려의 문인들이 강서시파의 수용과 이해를 위해 각범의 시화집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그 사상적 배경이 되는 황룡파의 문자선과 어록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선종계에서 황룡파의 어록이 수용된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염송집』이다. 『염송집』에 수록된 황룡파의 어록은 북송말 남송초의 선종사를 이해하는 逸書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염송집』에 인용된 황룡파의 착어를 분석,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착어의 인용 횟수가 많은 순서는 心聞曇賁(148), 無示介諶(85), 眞淨克文(62), 晦堂祖心(49), 東林常總(49), 長靈守卓(44), 智海智淸(43), 黃龍慧南(40), 佛陀德遜(28), 崑山慧元(27), 死心悟新(25), 慈航了朴(21), 仰山行偉(18), 覺範惠洪(12), 開元子琦(7) 등의 순이다. 이를 통해 『염송집』에 수록된 착어가 많은 선승들은 황룡혜남의 문하

에서 회당조심 - 영원유청 - 장령수탁 - 무시개심 - 심문담분으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이들이 중시된 것은 황룡과의 주류라는 사실과 함께 고려 선종계와의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곧, 탄연이 무시개심의 범맥을 이었으며, 심문담분과 범형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송대 선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심문담분과 무시개심의 착어가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그러한 관계가 고려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염송집』 본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장령수탁과 무시개심이라는 사실은 수선사가 황룡과를 중시하였고, 고려 선종계와의 범맥을 의식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둘째, 황룡과 선승들의 착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수록되었다. 대체로 황룡과 초기의 선승들은 염고, 송고 등이 다양하게 인용되었지만, 장령수탁 이후 황룡과 후기의 선승들의 경우에는 송고의 비중이 대체로 큰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북송기 선종계에서 착어가 대개 염고 중심에서 송고 위주로 유행하였던 경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셋째, 각범혜홍은 황룡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고려 선종계에서 그의 선적이 다양하게 수용된 것에 비해 착어의 인용이 적다. 그것은 각범의 착어가 일반적인 착어 인용과 다르거나, 대부분 특정 공안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송집』의 형식이나 구성과 어울리지 않아 수록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황룡과의 착어는 『염송집』이 문자선의 집성이라는 문헌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진정극문의 착어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진정이 송대 선종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無事禪 비판이다. 그런데 『진정어록』에서 상당히 많은 착어가 인용,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염송집』에는 무사선에 대한 비판이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수선사가 『염송집』을 편찬한 것은 문자선의 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염송집』에 인용된 黃龍慧南의 착어 일람표<sup>52)</sup>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81 (迦葉)	上堂云	『筠州黃蘗山法語』(X69-201c)	
2	83 (阿難)	舉云	『續補』(X69-207b)	단독
3	112 (六祖慧能)	上堂云	『續補』(X69-206a)	
4	130 (慧忠國師)	頌古 頌古	『偈頌』(X69-204a)	『聯』
5	148 (清源行思)	頌古	『偈頌』(X69-204a)	『聯』
6	149 (清源行思)	上堂舉云	『黃』(X69-199c)	
7	168 (馬祖道一)	上堂舉云	『續補』(X69-207b)	
8	270 (大珠慧海)	上堂舉云	『黃』(X69-203a)	
9	272 (大珠慧海)	上堂舉云	『續補』(X69-206c)	단독 원문은 示衆
10	316 (龐居士)	頌古	『黃』(X69-202c)	『聯』
11	338 (藥山惟儼)	上堂舉云	『黃』(X69-199a)	
12	353 (潮州大顛)	頌古	『偈頌』(X69-203c)	
13	375 (滄山靈祐)	頌古 頌古 頌古	『偈頌』(X69-204b)	『聯』
14	411 (趙州從諗)	頌古 頌古	『偈頌』(X69-204a)	『聯』
15	412 (趙州從諗)	頌古	『偈頌』(X69-203c)	『聯』
16	421 (趙州從諗)	頌古 頌古 頌古	『偈頌』(X69-204a)	인용 순서 바뀜
17	435 (趙州從諗)	頌古	『黃』(X69-201a)	『聯』
18	449 (趙州從諗)	上堂舉云	『續補』(X69-207c)	『統要』
19	508(五臺秘魔崖)	頌古	『偈頌』(X69-203c)	『聯珠』
20	590 (靈雲志勤)	頌古 頌古 頌古	『偈頌』(X69-203c)	『聯』
21	615 (臨濟義玄)	上堂舉云	『黃』(X69-201a)	『統要』
22	635 (臨濟義玄)	頌古	『偈頌』(X69-203c)	『聯』
23	656 (睦州道蹤)	上堂舉云	『黃』(X69-201a)	『統要』

52) 모든 표에서 新撰大日本續藏經은 X, 『禪宗頌古聯珠集』은 『聯』, 『宗門燃燈會要』는 『燃燈』, 『正法眼藏』은 『正法』, 『續古尊宿語錄』은 『續古』로 표기하였다. 비고의 단독은 단독 착어를 의미한다. <표1>에 『黃』은 『黃龍慧南禪師語錄』, 『續補』는 『黃龍南禪師語錄續補』이다.

24	671 (德山宣鑿)	拈古	『續補』(X69-207c)	
25	754 (魏府大覺)	學云	『續補』(X69-206a)	
26	758 (興化存獎)	拈古	『續補』(X69-207c)	
27	859 (雲居道膺)	上堂學云	『續補』(X69-208c)	
28	918 (越州乾峯)	上堂學云	『黃』(X69-203b)	『統要』
29	987 (玄沙師備)	上堂學云	『續補』(X69-207c)	『統要』
30	1016 (雲門文偃)	頌古	『偈頌』『黃』(X69-204b)	『聯』
31	1018 (雲門文偃)	頌古	『偈頌』『黃』(X69-204b)	『聯』
32	1035 (雲門文偃)	上堂云	『黃』(X69-202a)	
33	1038 (雲門文偃)	上堂學云	『黃』(X69-199c)	
34	1043 (雲門文偃)	上堂學云	『續補』(X69-208a)	
35	1121 (鏡清道忞)	上堂學云	『黃』(X69-202a)	
36	1154 (南院慧顛)	上堂學云	『黃』(X69-201a)	
37	1164 (鎮州2世寶壽)	頌古	『偈頌』『黃』(X69-203c)	『聯』
38	1241 (明教)	上堂學云	『續補』(X69-208a)	
39	1242 (明教)	云	『續補』(X69-208a)	
40	1282 (智門光祚)	上堂學云	『續補』(X69-208a)	

<표2> 『염송집』에 인용된 仰山行偉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106 (三祖僧璨)	上堂學云		10	512 (鎮州普化)	上堂云	
2	143 (慧忠國師)	頌古	단독	11	513 (鎮州普化)	上堂學云	
3	162 (馬祖)	上堂學云		12	640 (睦州道蹤)	上堂學云	
4	338 (藥山惟儼)	拈古		13	1016 (雲門文偃)	上堂云	
5	408 (趙州從諗)	頌古		14	1043 (雲門文偃)	上堂學云	
6	411 (趙州從諗)	上堂學云		15	1230 (洞山守初)	頌古	
7	412 (趙州從諗)	頌古		16	1291 (法眼文益)	頌古	
8	421 (趙州從諗)	頌古		17	1320 (首山省念)	頌古	
9	423 (趙州從諗)	上堂學云		18	1347 (石門蘊聰)	學云	

<표3> 『염송집』에 인용된 開元子琦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65 (文殊)	上堂學云		5	407 (趙州從諗)	上堂云	
2	204 (南泉普願)	上堂學云		6	457 (趙州從諗)	上堂學云	
3	265 (大梅法常)	學云		7	864 (雲居道膺)	學云	
4	389 (黃蘗希運)	學云					

〈표4〉 『염송집』에 인용된 佛陀德遜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2 (世尊)	上堂舉云		15	667 (德山宣鑿)	小參舉云	
2	32 (世尊)	頌古		16	747 (鳥窠道林)	頌古	
3	180 (百丈懷海)	拈古	단독	17	759 (興化存獎)	上堂舉云	
4	184 (百丈懷海)	頌古		18	894 (龍牙居遁)	頌古	
5	188 (魯祖寶雲)	頌古		19	917 (越州乾峯)	上堂舉云	
6	335 (藥山惟儼)	拈古		20	923 (霍山景通)	頌古	
7	412 (趙州從諗)	頌古		21	987 (玄沙師備)	頌古	
8	421 (趙州從諗)	頌古		22	1016(雲門文偃)	頌古	
9	429 (趙州從諗)			23	1018(雲門文偃)	頌古	『聯』
10	508(五臺秘魔窟)	頌古		24	1052(雲門文偃)	晚參舉云	
11	573 (仰山惠寂)	頌古		25	1164(鎮州2世寶壽)	頌古	
12	590 (靈雲志勤)	頌古		26	1194(資福如寶)	舉云	
13	615 (臨濟義玄)	頌古		27	1229(洞山守初)	頌古	
14	635 (臨濟義玄)	頌古		28	1290(法眼文益)	頌古	

〈표5〉 『염송집』에 인용된 崑山慧元的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1 (世尊)	頌古		15	357 (滄山靈祐)	頌古	
2	5 (世尊)	頌古		16	412 (趙州從諗)	頌古	
3	8 (世尊)	上堂舉云		17	421 (趙州從諗)	頌古	
4	16 (世尊)	頌古		18	434 (趙州從諗)	頌古 頌古 頌古 頌古	
5	48 (圓覺經)	上堂云		19	462 (趙州從諗)	頌古	
6	55 (金剛經)	上堂舉云		20	503 (鄂州茱萸)	上堂舉云	
7	81 (迦葉)	頌古		21	590 (靈雲志勤)	頌古	
8	130 (慧忠國師)	頌古		22	662 (徑山道欽)	上堂舉云	
9	148 (清源行思)	頌古		23	793 (雪峯義存)	頌古	
10	150 (清源行思)	上堂云		24	919 (越州乾峯)	頌古 頌古	
11	178 (百丈懷海)	頌古 頌古		25	947 (洛浦元安)	頌古	
12	184 (百丈懷海)	頌古		26	1290(法眼文益)	頌古	

13	321 (丹霞天然)	頌古		27	1424 (生法師)	上堂舉云	
14	335 (藥山惟儼)	上堂云					

<표6> 『염승집』에 인용된 晦堂祖心の 착어 일람표

번호	『염승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5 (世尊)	拈古	『室中舉古』(X69-220a)	『統要』
2	45 (圓覺經)	舉云	X69-215a	
3	46 (圓覺經)	舉云	X69-213c9	『燃燈』14, 123b5 『正法』 559c3 『續古』 360b10
4	51 (楞嚴經)	拈古	『室中舉古』(X69-221a)	
5	74 (毗目仙人)	拈古		
6	84(優波鞠多尊者)	舉云	X69-217a	단독
7	86(彌遮迦尊者)	舉云	X69-217b	단독
8	87(婆須密尊者)	舉云	X69-214b	
9	98 (達磨)	舉云	『室中舉古』(X69-222c)	문답 포함
10	110 (六祖慧能)	曰	『禪林僧寶傳』(X79-547)	
11	123 (永嘉玄覺)	上堂舉云	X69-218a	
12	129 (慧忠國師)	舉云	『室中舉古』(X69-223b)	
13	178 (百丈懷海)	上堂舉云	X69-216a	
14	200 (鹽官齊安)	拈古	『室中舉古』(X69-221c)	
15	209 (南泉普願)	拈古	『室中舉古』(X69-220c)	
16	226 (南泉普願)	舉云	X69-214a	
17	242 (南泉普願)	上堂舉云	『室中舉古』(X69-222b)	
18	357 (滄山靈祐)	上堂云	X69-215a	
19	399 (大慈寶中)	舉云	『室中舉古』(X69-220b)	
20	429 (趙州從諗)	舉云	『室中舉古』(X69-221b)	
21	494 (長沙景岑)	上堂舉云	X69-215a	『正法』 604a 『燃燈』 123b
22	546 (三平義忠)	拈古	『室中舉古』(X69-222c)	
23	568 (仰山惠寂)	拈古	『室中舉古』(X69-221a)	『統要』
24	639 (睦州道蹤)	拈古	『燃燈』(X79-79b5)	
25	664 (德山宣鑒)	舉云	『室中舉古』(X69-220c)	『統要』
26	716 (夾山善會)	舉云	『室中舉古』(X69-222a)	
27	756 (興化存獎)	拈古	『室中舉古』(X69-221a)	『統要』
28	759 (興化存獎)	舉云	『室中舉古』(X69-220b)	

29	873(疎山光仁)	舉云	『室中舉古』(X69-220c)	
30	917(越州乾峯)	舉云	『室中舉古』(X69-223a)	
31	995(玄沙師備)	舉曰	『室中舉古』(X69-220b)	
32	1002(玄沙師備)	舉云	『室中舉古』(X69-221c)	
33	1006(雲門文偃)	拈古	『室中舉古』(X69-220c)	
34	1010(雲門文偃)	舉曰	『室中舉古』(X69-221c)	문답
35	1068(雲門文偃)	舉曰	『室中舉古』(X69-222a)	문답
36	1074(雲門文偃)	拈古	『室中舉古』(X69-221a)	
37	1088(雲門文偃)	舉	『室中舉古』(X69-221b)	단독
38	1090(雲門文偃)	舉云	『室中舉古』(X69-221c)	단독
39	1096(雲門文偃)	舉云	『室中舉古』(X69-221c)	
40	1097(雲門文偃)	舉云	X69-216a	
41	1105(長慶慧稜)	舉曰	『室中舉古』(X69-222a)	문답
42	1119(鏡清道忞)	拈古	『室中舉古』(X69-220b)	『統要』
43	1153(南院慧顛)	拈古	『室中舉古』(X69-220b)	『統要』
44	1209(地藏羅漢)	拈古	『室中舉古』(X69-222b)	
45	1366(興福可勳)	舉云	X69-214b	
46	1424(生法師)	示衆云	X69-216a	원문 上堂
47	1444(寒山)	室中舉 拈古	『室中舉古』(X69-222b)	단독
48	1445(寒山)	舉云	『室中舉古』(X69-221a)	단독
49	1449(布袋)	拈古	X69-222c	

<표7> 『염송집』에 인용된 死心悟新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48(圓覺經)	上堂		
2	147(淸源行思)	上堂舉云		
3	181(百丈懷海)	上堂云		
4	190(伏牛山自在)	拈古		
5	267(大梅法常)	上堂舉云	X69-228b	
6	288(章敬懷惲)	拈古		
7	410(趙州從諗)	上堂舉云	X69-227c	
8	492(長沙景岑)	頌古	X69-227b	『聯』
9	556(石霜慶諸)	上堂舉云	X69-229c	
10	615(臨濟義玄)	上堂舉云		
11	715(夾山善會)	上堂舉云		

12	725 (投子大同)	上堂學云	X69-227b	
13	759 (興化存獎)	拈古		
14	783 (雪峯義存)	上堂學云		
15	785 (雪峯義存)	上堂學云		
16	791 (雪峯義存)	頌古		
17	795 (雪峯義存)	上堂學云		『正法』 571b10 『燃燈』 202c20
18	811 (雪峯義存)	上堂學云		
19	812 (雪峯義存)	上堂學云		
20	858 (雲居道膺)	上堂學云	X69-229c	
21	981 (玄沙師備)	拈古		『統要』 76b7
22	987 (玄沙師備)	學云		
23	1128 (翠巖令參)	上堂學云		『聯』 67b18
24	1164 (鎮州2世寶壽)	拈古		『統要』 789b8
25	1194 (資福如寶)	拈古		

<표8> 『염송집』에 인용된 東林常總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5 (世尊)	頌古	『聯』	26	569 (仰山惠寂)	拈古	『統要』
2	100 (達磨)	上堂學云		27	590 (靈雲志勤)	頌古	
3	130 (慧忠國師)	頌古	『聯』	28	607 (臨濟義玄)	頌古	『聯』
4	157 (馬祖道一)	頌古	『聯』	29	615 (臨濟義玄)	上堂學云	
5	161 (馬祖道一)	上堂學云		30	635 (臨濟義玄)	頌古	『聯』
6	164 (馬祖道一)	頌古	『聯』	31	665 (德山宣鑒)	頌古	『聯』
7	169 (馬祖道一)	頌古 上堂學云	『聯』	32	758 (興化存獎)	頌古	『聯』
8	181 (百丈懷海)	頌古 學云	『聯』 『統要』	33	810 (雪峯義存)	頌古	『聯』
9	184 (百丈懷海)	頌古	『聯』	34	848 (大隨法眞)	頌古	『聯』
10	188 (魯祖寶雲)	上堂		35	866 (雲居道膺)	學云	
11	217 (南泉普願)	上堂學云	『統要』	36	918 (越州乾峯)	上堂學云	
12	273 (洪州水潦)	頌古	『聯』	37	935 (九峯道虔)	上堂學云	
13	275 (百丈惟政)	上堂學云		38	1016(雲門文偃)	頌古	『聯』
14	278 (石鞏慧藏)	上堂學云		39	1018(雲門文偃)	頌古 上堂學云	『聯』
15	356 (滄山靈祐)	頌古	『聯』	40	1050(雲門文偃)	上堂學云	단독

16	389 (黃蘗希運)	頌古	『聯』	41	1051(雲門文偃)	頌古	
17	408 (趙州從諗)	頌古 頌古	『聯珠』 확인	42	1164(鎮州2世寶壽)	上堂云	
18	410 (趙州從諗)	頌古	『聯』	43	1229(洞山守初)	頌古	
19	411 (趙州從諗)	頌古	『聯』	44	1230(洞山守初)	頌古	
20	412 (趙州從諗)	頌古	『聯』	45	1291(法眼文益)	頌古	『聯』
21	421 (趙州從諗)	頌古	『聯』	46	1296(法眼文益)	上堂舉云	
22	490 (長沙景岑)	上堂云		47	1299(法眼文益)	頌古	
23	511 (遂州良遂)	上堂云		48	1339(汾陽善昭)	拈古	
24	534 (船子德誠)	頌古	『聯』	49	1436 (文殊)	頌古	
25	565 (漸源仲興)	拈古	『統要』				

<표9> 『염송집』에 인용된 長靈守卓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1 (世尊)	上堂云		
2	2 (世尊)	頌古	『偈頌』(X69-266c)	
3	5 (世尊)	頌古	『偈頌』(X69-267b)	『聯』
4	16 (世尊)	頌古	『偈頌』(X69-266c)	『聯』
5	24 (世尊)	上堂舉云	X69-260b	
6	62 (維摩)	頌古	『偈頌』(X69-266c)	
7	87(婆須密尊者)	上堂云	X69-262a	
8	110 (六祖慧能)	頌古	『偈頌』(X69-267a)	『聯』
9	130 (慧忠國師)	頌古	『偈頌』(X69-266c)	『聯』
10	159 (馬祖道一)	頌古	『偈頌』(X69-268a)	『聯』
11	169 (馬祖道一)	頌古	『偈頌』(X69-267b)	『聯』
12	256 (歸宗智常)	上堂云		
13	324 (藥山惟儼)	頌古	『偈頌』(X69-266c)	
14	412 (趙州從諗)	頌古	『偈頌』(X69-267a)	『聯』
15	425 (趙州從諗)	云	X69-261b	모두 차이
16	427 (趙州從諗)	頌古		『聯』
17	429 (趙州從諗)	上堂舉云	X69-263a	
18	497 (長沙景岑)	頌古	『偈頌』(X69-267b)	
19	517 (天柱崇慧)	上堂舉云	X69-258bc	
20	561 (石霜慶諸)	上堂云		
21	564 (漸源仲興)	頌古	『偈頌』(X69-267a)	『聯』
22	639 (睦州道蹤)	頌古	『偈頌』(X69-267c)	『聯』

23	641 (睦州道蹤)	頌古	『偈頌』(X69-267a)	
24	672 (德山宣鑿)	頌古	『偈頌』(X69-267b)	
25	686 (洞山良价)	頌古	『偈頌』(X69-267a)	『聯』
26	699 (洞山良价)	頌古	260c	
27	711 (夾山善會)	頌古	『偈頌』(X69-267a)	
28	726 (投子大同)	頌古	『偈頌』(X69-266c)	『聯』
29	729 (投子大同)	頌古	『偈頌』(X69-267a)	『聯』
30	752 (三聖慧然)	頌古	『偈頌』(X69-267b)	
31	768 (定上座)	頌古	『偈頌』(X69-267c)	
32	795 (雪峯義存)	上堂	X69-261c	
33	809 (雪峯義存)	上堂學云	X69-262c	
34	828 (巖頭全豁)	頌古 頌古	『偈頌』(X69-267b)	『聯』
35	866 (雲居道膺)	上堂學云	X69-260c	
36	918 (越州乾峯)	頌古	『偈頌』(X69-267c)	『聯』
37	1015 (雲門文偃)	上堂云	X69-259c	
38	1022 (雲門文偃)	頌古	『偈頌』(X69-267c)	
39	1035 (雲門文偃)	上堂學云	X69-263a	
40	1070 (雲門文偃)	頌古	『偈頌』(X69-267c)	
41	1220 (巴陵顯鑑)	頌古	『偈頌』(X69-266c)	『聯』
42	1281 (智門光祚)	頌古	『偈頌』(X69-267a)	『聯』
43	1290 (法眼文益)	頌古	『偈頌』(X69-266c)	『聯』
44	1432 (傅大士)	云	X69-259a	단독

<표10> 『염송집』에 인용된 眞淨克文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착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18 (世尊)	上堂云	X68-289a	
2	94(摩拏羅尊者)	上堂學云	X68-284a	
3	121 (南嶽懷讓)	上堂云	X68-293c	
4	161 (馬祖道一)	上堂學云	X68-290a	
5	169 (馬祖道一)	頌古	『偈頌』(X68-297c)	『聯』
6	181 (百丈懷海)	頌古	『偈頌』(X68-299a)	『聯』
7	184 (百丈懷海)	頌古	『偈頌』(X68-299a)	『聯』 532a22 『正法』 627a
8	187 (百丈懷海)	上堂學云 上堂學云	X68-284b X68-288c	

9	207 (南泉普願)	上堂云	X68-285b	
10	255 (歸宗智常)	上堂舉云	X68-285b	
11	291(西山亮座主)	上堂舉云	X68-290a	
12	307 (龐居士)	頌古 上堂舉云	『偈頌』(X68-299c) X68-290a	
13	321 (丹霞天然)	上堂云 上堂	X68-281b X68-281b	연속 인용
14	357 (滄山靈祐)	頌古	X68-299b	송고 660c20
15	408 (趙州從諗)	上堂云	X68-279c	세주
16	412 (趙州從諗)	頌古 頌古 上堂舉云	『偈頌』(X68-297c) 『偈頌』(X68-298a) X68-287b	『聯』
17	417 (趙州從諗)	頌古	『偈頌』(X68-298b)	『聯』(592c15) 『正法』(625a20) 『燃燈』(59c6)
18	421 (趙州從諗)	頌古 頌古 頌古 頌古	『偈頌』(X68-297c) 『偈頌』(X68-297c) 『偈頌』(X68-298a) 『偈頌』(X68-298a)	『聯』 588c17
19	427 (趙州從諗)	上堂舉云	X68-291a	
20	435 (趙州從諗)	頌古	『偈頌』(X68-298b)	『聯』
21	498 (長沙景岑)	頌古	『偈頌』(X68-298b)	단독
22	510(五臺山智通)	上堂舉云	X68-280b	
23	514 (鎮州普化)	上堂舉云	X68-283b	
24	553(末山尼了然)	頌古	『偈頌』(X68-299b)	『聯』 617a4
25	590 (靈雲志勤)	頌古 頌古	『偈頌』(X68-298b) 『偈頌』(X68-298b)	『聯』 616a4
26	598 (香嚴智閑)	上堂舉云	X68-280c	
27	607 (臨濟義玄)	頌古 頌古	『偈頌』(X68-298c) 『偈頌』(X68-298c)	『聯珠』, 『普燈』 『普燈』
28	608 (臨濟義玄)	頌古	『偈頌』(X68-299a)	『聯』 603c14
29	686 (洞山良价)	上堂舉云	X68-285c	
30	747 (鳥窠道林)	頌古	『偈頌』(X68-298a)	『聯』 517b4 『普燈』 461a16
31	751 (三聖慧然)	上堂舉云	X68-278c	『普燈』 450c19 『正法』 561b6 『燃燈』 94b
32	758 (興化存獎)	頌古	『偈頌』(X68-299a)	『聯』 636c2 『普燈』 333a7

				『燃燈』 100c6
33	789 (雪峯義存)	頌古 上堂舉云 上堂舉云	『偈頌』(X68-297b) X68-284b X68-276c	『燃燈』125b2, 『正法』565c, 『燃燈』185a
34	790 (雪峯義存)	頌古 頌古 上堂舉云	『偈頌』(X68-297b) 『偈頌』(X68-297b) X68-284a	『聯』 『聯』 『普燈』 450c24 『正法』 559c24 『燃燈』 125a19
35	848 (大隨法眞)	頌古	『偈頌』(X68-297b)	
36	849 (大隨法眞)	上堂舉云	X68-275c	
37	903 (龍牙居遁)	頌古	『偈頌』(X68-298b)	『聯』 660a10
38	918 (越州乾峯)	小參舉云	X68-282a	『正法』 612ab, 『燃燈』124b
39	1013 (雲門文偃)	上堂舉云	X68-293c	
40	1016 (雲門文偃)	頌古	『偈頌』(X68-297c)	『聯珠』679c16
41	1018 (雲門文偃)	頌古	『偈頌』(X68-299a)	『聯』 683a13
42	1022 (雲門文偃)	頌古	『偈頌』(X68-298c)	『聯』 681c5
43	1024 (雲門文偃)	頌古	『偈頌』(X68-297c)	『聯』
44	1034 (雲門文偃)	頌古 頌古 頌古 上堂舉云	『偈頌』(X68-297c) 『偈頌』(X68-297c) 『偈頌』(X68-297c) X68-294a	『聯』  『聯』
45	1035 (雲門文偃)	頌古 上堂舉云	『偈頌』(X68-299a) X68-280c	『聯』 681a1
46	1055 (雲門文偃)	頌古	『偈頌』(X68-298a)	『聯』 684b7
47	1067 (雲門文偃)	頌古 頌古	『偈頌』(X68-298c) 『偈頌』(X68-299a)	단독
48	1073 (雲門文偃)	上堂舉云	X68-278a	
49	1081 (雲門文偃)	頌古	『偈頌』(X68-298c)	『聯』 678c5
50	1091 (雲門文偃)	上堂舉云 上堂云 上堂舉云	X68-279b X68-283c X68-295b	
51	1095 (雲門文偃)	上堂舉云 上堂舉云	X68-293b X68-286b	단독
52	1120 (鏡清道忞)	上堂舉云	X68-293a	
53	1134 (孚上座)	上堂舉云	X68-281a	
54	1164 (鎮州保壽)	頌古	『偈頌』(X68-298a)	송고 순서 바뀜

		頌古	『偈頌』(X68-298a)	『聯』 666a2, 『正法』625c
55	1192 (芭蕉慧情)	上堂舉云 上堂舉云	X68-287a X68-285b	
56	1250 (風穴延昭)	頌古	『偈頌』(X68-298b)	『聯』 694b11 『正法』 621b1
57	1308 (修山主)	上堂舉云	X68-288b	
58	1320 (首山省念)	頌古 頌古	X68-298c X68-298c	송고 순서 바뀜 『聯』 701c20, 701c18
59	1321 (首山省念)	頌古 上堂	『偈頌』(X68-297c) X68-295a	『聯』 702b13
60	1398 (黃龍慧南)	頌古 頌古 頌古	『偈頌』(X68-298a)	3수 연속 『聯』 718a6
61	1443 (寒山子)	上堂舉云	X68-278a	
62	1449 (布袋)	上堂舉云	X68-273c	

<표11> 『염송집』에 인용된 智海智淸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71 (舍利佛)	上堂云		23	758 (興化存獎)	上堂舉云	
2	80 (迦葉)	舉云		24	828 (巖頭全豁)	頌古	
3	107 (三祖僧璨)	舉云		25	853 (靈樹如敏)	頌古	
4	126 (永嘉玄覺)	舉云		26	855 (雲居道膺)	頌古	
5	146 (慧忠國師)	上堂舉云		27	894 (龍牙居遁)	頌古	
6	158 (馬祖道一)	舉云		28	918 (越州乾峯)	上堂舉云	
7	200 (鹽官齊安)	上堂舉云		29	932 (九峯道虔)	頌古	
8	308 (龐居士)	上堂舉云		30	936 (九峯道虔)	舉云	단독
9	313 (龐居士)	頌古 頌古		31	985 (玄沙師備)	上堂舉云	
10	334 (藥山惟儼)	上堂舉云		32	987 (玄沙師備)	上堂舉云	
11	354 (潮州大顛)	頌古		33	1074 (雲門文偃)	上堂舉云	
12	356 (滄山靈祐)	頌古		34	1121 (鏡清道忞)	上堂舉云	
13	375 (滄山靈祐)	頌古		35	1162 (南院慧顛)	舉云	단독
14	391 (黃蘗希運)	上堂舉云		36	1207 (羅漢桂琛)	上堂舉云	
15	405 (大于和尚)	舉云		37	1229 (洞山守初)	頌古	
16	411 (趙州從諗)	頌古		38	1289 (法眼文益)	上堂舉云	단독

		頌古					
17	431 (趙州從諗)	上堂學云		39	1309 (修山主)	舉云	修山主頌
18	573 (仰山惠寂)	頌古		40	1348 (石門蘊聰)	舉云	
19	601 (香巖智閑)	頌古		41	1362 (天台德韶)	頌古	단독
20	635 (臨濟義玄)	上堂學云		42	1393 (雲居道齊)	上堂學云	
21	671 (德山宣鑒)	上堂學云		43	1433 (杜順和尚)	舉云	
22	727 (投子大同)	上堂學云					

<표12> 『염송집』에 인용된 覺範惠洪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32 (世尊)	覺範云	『林間錄』下(X87-266b)	전체 인용
2	74 (毗目仙人)	覺範曰	『臨濟宗旨』(X63-169c)	
3	98 (達磨)	林間錄云	『林間錄』上(X87-249c)	
4	184 (百丈)	林間錄云	『林間錄』下(X87-269c)	전체 인용
5	421 (趙州從諗)	洪覺範曰 僧寶傳云	『禪林僧寶傳』(X79-507b) 『禪林僧寶傳』 권11(X79-514c)	
6	590 (靈雲志勤)	頌古	『林間錄』下(X87-267a)	『연주』 614c
7	875 (疎山光仁)	贊曰	『林間錄』下(X87-264a)	『石門文字禪』 (J23-666c27)
8	894 (龍牙居遁)	贊曰	『禪林僧寶傳』 권9(X79-510a)	
9	1233(洞山守初)	覺範云	『林間錄』上(X87-251b)	
10	1291(法眼文益)	贊曰	『禪林僧寶傳』 권7(X79-506a)	
11	1398(黃龍慧南)	林間錄云	『林間錄』上(X87-246b)	전체 인용
12	1405(道吾悟眞)	頌古	『林間錄』 下(X87-265b)	단독

<표14> 『염송집』에 인용된 無示介諶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5 (世尊)	頌古 拈古		44	662 (徑山道欽)	頌古	
2	14 (世尊)	拈古		45	711 (夾山善會)	舉云	
3	16 (世尊)	頌古		46	721 (夾山善會)	拈古	
4	52 (楞嚴經)	拈古		47	726 (投子大同)	頌古	
5	87(婆須密尊者)	云		48	729 (投子大同)	拈古	
6	95 (師子尊者)	頌古		49	747 (鳥窠道林)	拈古 上堂云	

7	102 (達磨)	舉云		50	757 (興化存獎)	拈古	
8	110 (六祖慧能)	舉云		51	782 (雪峯義存)	拈古	
9	112 (六祖慧能)	拈古 上堂云		52	789 (雪峯義存)	頌古	
10	117 (蒙山道明)	頌古		53	793 (雪峯義存)	頌古	
11	145 (慧忠國師)	拈古		54	821 (雪峯義存)	舉云	단독
12	184 (百丈懷海)	頌古		55	826 (巖頭全豁)	頌古	
13	191 (伏牛自在)	頌古		56	842 (高亭簡)	拈古	
14	215 (南泉普願)	拈古 云		57	848 (大隨法眞)	頌古	
15	224 (南泉普願)	拈古		58	862 (雲居道膺)	云	단독
16	225 (南泉普願)	拈古		59	884 (曹山本寂)	頌古	
17	234 (南泉普願)	拈古		60	997 (玄沙師備)	拈古	
18	235 (南泉普願)	頌古		61	999 (玄沙師備)	拈古	
19	273 (洪州水潦)	拈古		62	1007 (雲門文偃)	拈古	
20	275 (百丈惟政)	拈古		63	1010 (雲門文偃)	上堂云	
21	321 (丹霞天然)	頌古		64	1013 (雲門文偃)	拈古	
22	338 (藥山惟儼)	拈古		65	1015 (雲門文偃)	頌古 拈古	
23	356 (滄山靈祐)	頌古		66	1018 (雲門文偃)	頌古 小參舉云	
24	364 (滄山靈祐)	頌古		67	1021 (雲門文偃)	拈古	
25	369 (滄山靈祐)	拈古		68	1024 (雲門文偃)	舉云	
26	372 (滄山靈祐)	拈古		69	1030 (雲門文偃)	舉云	
27	379 (滄山靈祐)	拈古		70	1069 (雲門文偃)	拈古	
28	390 (黃蘗希運)	頌古		71	1119 (鏡清道忞)	頌古 拈古	
29	412 (趙州從諗)	頌古		72	1144 (金峯從志)	拈古	
30	417 (趙州從諗)	頌古		73	1164 (鎮州保壽)	拈古	
31	424 (趙州從諗)	頌古		74	1175 (同安常察)	拈古	
32	429 (趙州從諗)	拈古		75	1200 (羅山道閑)	頌古	
33	436 (趙州從諗)	頌古 拈古		76	1230 (洞山守初)	拈古	
34	453 (趙州從諗)	拈古		77	1233 (洞山守初)	舉	
35	472 (趙州從諗)	拈古		78	1234(深明二上座)	頌古	
36	478 (趙州從諗)	拈古		79	1261 (風穴延昭)	頌古	
37	492 (長沙景岑)	頌古		80	1295 (法眼文益)	拈古	
38	551 (于迪相公)	舉云		81	1335 (汾陽善昭)	頌古	

39	552 (金華俱胝)	上堂云		82	1339 (汾陽善昭)	頌古 頌古 頌古 頌古 頌古	
40	581 (仰山惠寂)	拈古		83	1427 (金陵寶誌)	拈古	
41	592 (靈雲志勤)	頌古		84	1436 (文殊)	頌古	
42	618 (臨濟義玄)	小參學云		85	1456 (古德)	云	단독
43	640 (睦州道蹤)	拈古					

<표15> 『염송집』에 인용된 心聞曇貴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19 (世尊)	頌古		75	754 (魏府大覺)	頌古	
2	32 (世尊)	頌古		76	758 (興化存獎)	頌古	
3	33 (世尊)	頌古		77	760 (興化存獎)	上堂學云	
4	36 (世尊)	頌古		78	761 (興化存獎)	上堂學云	
5	53 (楞嚴經)	頌古		79	780 (雪峯義存)	頌古	
6	55 (金剛經)	頌古		80	781 (雪峯義存)	頌古	
7	66 (文殊)	頌古		81	795 (雪峯義存)	上堂學云	
8	71 (舍利佛)	頌古		82	810 (雪峯義存)	頌古 頌古 頌古	
9	81 (迦葉)	頌古		83	819 (雪峯義存)	拈古	
10	90 (龍樹)	頌古		84	892 (曹山本寂)	拈古	
11	95 (師子尊者)	頌古		85	902 (龍牙居遁)	頌古	
12	110 (六祖慧能)	頌古		86	929 (大安清幹)	頌古	단독
13	129 (慧忠國師)	云		87	932 (九峯道虔)	頌古	
14	131 (慧忠國師)	頌古		88	937 (九峯道虔)	頌古 頌古	
15	137 (慧忠國師)	頌古		89	944 (覆船洪荐)	學云	단독
16	146 (慧忠國師)	上堂學云		90	945 (中雲盖)	拈古	
17	154 (破竈墮)	拈古		91	957 (洛浦元安)	頌古	
18	161 (馬祖道一)	頌古		92	1015(雲門文偃)	頌古 頌古	
19	162 (馬祖道一)	頌古		93	1016(雲門文偃)	頌古	
20	164 (馬祖道一)	拈古		94	1025(雲門文偃)	上堂學云	
21	169 (馬祖道一)	頌古		95	1026(雲門文偃)	上堂學云	단독

22	181 (百丈懷海)	頌古		96	1027(雲門文偃)	頌古	
23	184 (百丈懷海)	頌古		97	1030(雲門文偃)	拈古	
24	185 (百丈懷海)	頌古		98	1051(雲門文偃)	頌古	
25	187 (百丈懷海)	頌古		99	1055(雲門文偃)	頌古	
26	194 (麻谷寶徹)	頌古		100	1072(雲門文偃)	上堂舉云	
27	197 (麻谷寶徹)	上堂舉云	단독	101	1082(雲門文偃)	頌古	
28	209 (南泉普願)	頌古 拈古		102	1093(雲門文偃)	頌古	
29	215 (南泉普願)	上堂舉云		103	1102(雲門文偃)	舉云	단독
30	250 (盤山寶積)	上堂舉云		104	1118(鏡清道忞)	頌古	
31	266 (大梅法常)	頌古		105	1121(鏡清道忞)	頌古	
32	278 (石鞏慧藏)	頌古		106	1128(翠巖令參)	拈古	
33	298 (烏臼和尚)	頌古		107	1174(歸宗澹權)	頌古	
34	303 (乳源和尚)	舉云		108	1181(禾山澄源)	頌古 上堂舉云	
35	312 (龐居士)	頌古		109	1187(大安山省)	舉云	단독
36	321 (丹霞天然)	頌古		110	1192(芭蕉慧情)	上堂舉云 拈古	
37	324 (藥山惟儼)	頌古		111	1205(永安善靜)	拈古	
38	347 (長懿曠)	頌古		112	1211(安國慧球)	頌古	
39	358 (滄山靈祐)	頌古		113	1220(巴陵顛鑑)	頌古	
40	359 (滄山靈祐)	拈古		114	1231(洞山守初)	頌古	
41	364 (滄山靈祐)	法語云		115	1234 (深明二上座)	拈古	
42	370 (滄山靈祐)	頌古 頌古 上堂舉云		116	1241(智門師寬)	頌古	
43	377 (滄山靈祐)	拈古		117	1247(風穴延昭)	舉云	
44	400 (大慈寶中)	頌古 上堂舉云		118	1248(風穴延昭)	頌古 拈古	
45	408 (趙州從諗)	頌古		119	1251(風穴延昭)	頌古	
46	409 (趙州從諗)	頌古		120	1256(風穴延昭)	舉云	단독
47	411 (趙州從諗)	拈古		121	1261(風穴延昭)	頌古 拈古	
48	412 (趙州從諗)	頌古		122	1271(資福貞邃)	拈古	
49	429 (趙州從諗)	上堂云		123	1273(明招德謙)	頌古	
50	437 (趙州從諗)	頌古		124	1277(興陽歸靜)	拈古	
51	479 (趙州從諗)	頌古		125	1281(智門光祚)	上堂舉云	

52	492 (長沙景岑)	頌古		126	1284(智門光祚)	拈古	
53	509 (湖南祇林)	頌古		127	1296(法眼文益)	頌古	
54	543 (石室善道)	拈古		128	1308 (修山主)	擧云	
55	553 (末山尼)	頌古		129	1323(首山省念)	頌古 上堂擧云	
56	579 (仰山惠寂)	上堂擧云		130	1334(汾陽善昭)	頌古 拈古	
57	582 (仰山惠寂)	上堂擧云	단독	131	1338(汾陽善昭)	拈古	
58	590 (靈雲志勤)	頌古		132	1339(汾陽善昭)	頌古	
59	592 (靈雲志勤)	頌古		133	1355(雪竇重顯)	上堂擧云	
60	594 (靈雲志勤)	上堂擧云		134	1368(北禪智賢)	頌古	
61	610 (臨濟義玄)	上堂擧云		135	1379(瑯琊慧覺)	上堂擧云	
62	630 (臨濟義玄)	擧云		136	1382(瑯琊慧覺)	擧云	단독
63	635 (臨濟義玄)	頌古		137	1387(石霜楚圓)	擧云	
64	649 (睦州道蹤)	上堂擧云		138	1401(黃龍慧南)	擧云	단독
65	664 (德山宣鑒)	頌古		139	1403(楊岐方會)	頌古	
66	665 (德山宣鑒)	頌古		140	1407(雲峯文悅)	頌古	
67	668 (德山宣鑒)	頌古 擧云		141	1416(五祖法演)	頌古	
68	686 (洞山良价)	頌古		142	1422(長靈守卓)	上堂擧云	단독
69	698 (洞山良价)	擧云		143	1423(育王介謨)	頌古	단독
70	721 (夾山善會)	頌古		144	1425 (僧肇)	頌古	
71	725 (投子大同)	頌古 上堂擧云		145	1429 (傅大士)	上堂擧云	
72	726 (投子大同)	頌古		146	1433(杜順和尚)	上堂擧云	
73	739 (投子大同)	擧云		147	1436 (文殊)	頌古	
74	747 (鳥窠道林)	頌古		148	1442(天台豐干)	拈古	단독

<표16> 『염송집』에 인용된 慈航了朴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32 (世尊)	頌古		22	713 (夾山善會)	上堂擧云	
2	36 (世尊)	小參擧云		23	732 (投子大同)	頌古	
3	76(賓頭盧尊者)	上堂擧云		24	733 (投子大同)	頌古	
4	95 (師子尊者)	頌古		25	759 (興化存獎)	上堂擧云	
5	110 (六祖慧能)	頌古		26	790 (雪峯義存)	上堂擧云 上堂云	

6	157 (馬祖道一)	舉云		27	803 (雪峯義存)	小參舉云	
7	169 (馬祖道一)	上堂云		28	810 (雪峯義存)	小參舉云	
8	198 (麻谷寶徹)	上堂舉云		29	833 (巖頭全豁)	頌古	
9	201 (鹽官齊安)	上堂舉云		30	911 (白水本仁)	頌古	
10	253 (盤山寶積)	上堂舉云		31	1015 (雲門文偃)	上堂舉云	
11	266 (大梅法常)	頌古		32	1103 (雲門文偃)	上堂舉云	
12	281 (金牛和尚)	上堂舉云		33	1141 (金峯從志)	上堂舉云	
13	295 (龍山和尚)	小參舉云		34	1165 (西院思明)	上堂舉云	
14	321 (丹霞天然)	頌古		35	1175 (同安常察)	上堂舉云	
15	335 (藥山惟儼)	上堂舉云		36	1230 (洞山守初)	頌古 上堂云	
16	369 (滄山靈祐)	上堂舉云		37	1261 (風穴延昭)	上堂舉云	
17	395 (黃蘗希運)	上堂舉云		38	1285 (蓮花峯祥庵主)	上堂舉云	
18	454 (趙州從諗)	上堂舉云		39	1340 (汾陽善昭)	上堂舉云	단독
19	581 (仰山惠寂)	上堂舉云		40	1375 (天衣義懷)	上堂舉云	
20	631 (臨濟義玄)	頌古		41	1398 (黃龍慧南)	頌古	
21	656 (睦州道蹤)	上堂舉云		42	1434 (南嶽慧思)	上堂舉云	

<표17> 『염송집』에 인용된 無盡居士 張商英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2 (世尊)	頌古		25	347 (長髯曠)	頌古	『聯珠』
2	5 (世尊)	頌古		26	354 (潮州大顛)	頌古	
3	22 (世尊)	頌古		27	357 (滄山靈祐)	頌古	
4	27 (世尊)	頌古		28	374 (滄山靈祐)	頌古	『聯』
5	58 (金剛經)	頌古	『聯』	29	412 (趙州)	頌古	『聯』
6	63 (維摩)	頌古		30	453 (趙州)	頌古	『聯』
7	67 (堅意菩薩)	頌古		31	459 (趙州)	頌古	
8	81 (迦葉)	頌古	『聯』	32	497 (長沙景岑)	頌古	
9	100 (達磨)	頌古	『聯』	33	505 (甘贄行者)	頌古	『聯』
10	103 (達磨)	頌古		34	508(秘魔巖和尚)	頌古	
11	116 (崇嶽慧安)	頌古		35	607 (臨濟義玄)	頌古	『聯』
12	148 (清源行思)	頌古		36	633 (臨濟義玄)	頌古	『聯』
13	169 (馬祖)	頌古	『聯』	37	668 (德山宣鑒)	頌古	『聯』
14	181 (百丈)	頌古	『聯』	38	672 (德山宣鑒)	頌古	『聯』
15	184 (百丈)	頌古	『聯』	39	710 (夾山善會)	頌古	
16	193 (三角總印)	頌古		40	747 (鳥窠道林)	頌古	

17	203 (南泉普願)	頌古		41	758 (興化存獎)	頌古	
18	207 (南泉普願)	頌古		42	932 (九峯道虔)	頌古	『聯』
19	223 (南泉普願)	頌古		43	1016(雲門文偃)	頌古	『聯』
20	231 (南泉普願)	頌古		44	1018(雲門文偃)	頌古	『聯』
21	294 (浮盃和尚)	頌古		45	1230(洞山守初)	頌古	『聯』
22	302 (華林善覺)	頌古		46	1251(風穴延昭)	頌古	『聯』
23	321 (丹霞天然)	頌古	『聯』	47	1398(黃龍慧南)	頌古	
24	335 (藥山惟儼)	頌古	『聯』	48	1449(布袋和尚)	頌古	

## 〈 참고문헌 〉

### 1. 자료

『禪門拈頌集』(『고려대장경』 46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한국불교전서 6책(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大正新脩大藏經(도쿄 : 大藏出版, 1928)

新撰大日本續藏經(도쿄 : (株)國書刊行會, 1986)

### 2. 논저류

宇井伯壽, 「古尊宿語錄について」, 『第二禪宗史研究』(도쿄 : 岩波書店, 1939), pp.47  
3~ 509.

柳田聖山, 「古尊宿語錄考」, 『花園大學研究紀要』 2(교토 : 花園大學, 1971).

柳田聖山, 「宋版古尊宿語錄調査報告」, 『禪文化研究所研究紀要』 4(교토 : 花園大學 禪  
文化研究所, 1972).

石井修道, 「眞淨克文の人と思想」,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4(도쿄 : 駒澤大學  
佛教學部, 1976).

椎名宏雄, 「『古尊宿語錄』 正續諸本の系統」, 『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13(도쿄 :  
駒澤大學, 1981).

阿部肇一, 『増訂中國禪宗史の研究』(도쿄 : 研文出版, 1986).

大野修作, 「惠洪『石門文字禪』 文學世界」, 『禪學研究』 67(교토 : 花園大學, 1989).

西口芳男, 「黃龍慧南의 臨濟宗轉向と 泐潭懷澄 - 附錄 『宗門摭英集』의 位置とその資料  
的價値」, 『禪文化研究所紀要』 16(교토 : 花園大學 禪文化研究所, 1990).

椎名宏雄, 『宋元版禪籍の研究』(도쿄 : 大東出版社 1993).

椎名宏雄, 「『禪門拈頌集』의 資料價値」, 『印度學佛教學研究』 第51卷 第1號(도쿄 : 印度  
學佛教學會, 2002).

조명제, 「고려중기 거사선의 사상적 경향과 간화선 수용의 기반」, 『역사와 경계』 44  
(부산 : 부산경남사학회, 2002).

土屋太祐, 「眞淨克文의 無事禪批判」, 『印度學佛教學研究』 51-1(도쿄 : 印度學佛教學

會, 2002).

土屋太祐, 「公案禪の成立に關する試論 -北宋臨濟宗の思想史-」,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 18(도쿄 : 駒澤大學 禪研究所, 2007).

조명제, 「一然의 선사상과 宋의 禪籍」, 『보조사상』 33(서울 : 보조사상연구원, 2010).

小川隆, 『續・語錄のことは『碧巖錄』と宋代の禪』(교토 : (財)禪文化研究所, 2010).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宗門統要集』」, 『보조사상』 34(서울 : 보조사상연구원, 2010).

小川隆, 『語錄の思想史』(도쿄, 岩波書店, 2011).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禪宗頌古聯珠集』」, 『불교학보』 62(서울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2).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한국사상사학』 42(서울 : 한국사상사학회, 2012).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宏智錄』」, 『불교학보』 63(서울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2).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운문종의 어록」, 『역사와 경계』 90(부산 : 부산경남사학회, 2014).

〈Abstract〉

## Compilation of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by Suseonsa(修禪社) and Zen analects of Imje Hwang-ryong-pa Sect(臨濟宗 黃龍派)

Cho, Myung-Je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is a Buddhist scripture compiled by Suseonsa and shows the originality of Korean Zen Buddhism. It also is a basic text that tells us how Suseonsa understood the Zen Buddhism of the Sung Dynasty and how it accepted the Zen of Discourse. As a result of analyzing and arranging comment on a catechetical question for zen meditation listed on 『SeonmunYeomsongjip』 on a whole scale, these could be known as below.

First, Most quoted Seon master in comment on a catechetical question for zen meditation is SImmun-Dambun(心聞曇贲), Musi-Gaesim(無示介諶), Jinjung-Geukmun(眞淨克文), Dongrim-Snagchong(東林常總), Changryung-Soodan(長靈守卓), Jihae-Jichong(智海智淸), Hwangryong-Hyenam(黃龍慧南), Bulta-Dokson(佛陁德遜), Sasim-Osin(死心悟新), Jahang-Ryobak(慈航了朴), Kagbum-Hehong(覺範惠洪) etc.

Second, 『SeonmunYeomsongjip』 is the book Suseonsa focused on organizing academic zen after Kaifeng Era. Unlike previous studies, zen of Suseonsa is deeply related to understanding of Gonggan reviews. In other words, it is inappropriate to evaluate acceptance of zen meditation with given topic too highly.

Third, comment on a catechetical question for zen meditation of Seon masters of Hwang-ryong-pa Sect listed on 『SeonmunYeomsongjip』 is mostly material which is not extant now. Because such material let reorganize Zen analects of Hwang-ryong-pa Sect in North Song, it has a value as a material to study meditation school history in Song dynasty. Because comment on a catechetical

question of Hwang-ryong-pa Sect listed on 『SeonmunYeomsongjip』 edited by Suseonsa is basically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of A work on zen talks, it is far from essential character of Hwang-ryong-pa Sect before A work on zen talks.

• Key Words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Suseonsa(修禪社), Imje Hwang-ryong-pa Sect(臨濟宗 黃龍派), A work on zen talks(文字禪), Jinjung-Geukmun(眞淨克文), Kagbum-Hehong(覺範惠洪), musaseon(無事禪)

논문접수일: 2014년 06월 20일, 심사완료일: 2014년 07월 18일,  
게재확정일: 2014년 07월 23일.